

대경화성, AIA로 첨단 이미지 부각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 사명변경 ... 현대차 계열편입 절차 진행중

현대자동차 계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대경화성(대표 김평기)이 회사 이미지를 첨단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사명을 AIA(아이아) 주식회사로 바꾸었다고 10월15일 밝혔다.

AIA는 현대자동차 계열 자동차부품 및 공작기계 제조회사인 위아(대표 김평기)가 2004년 8월 AIA 주식 지분 55.4%를 60억원에 인수해 현재 현대자동차 계열편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AIA는 자동차용 방진 고무제품과 범퍼 등 플라스틱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2004년 123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0/18>